바닷가 캠핑·해수찜… 해양치유관광 함평이 딱이네

다음달 중순부터 돌머리해양치유센터 운영…해수찜·음식점·카페 갖춰
405m 갯벌탐방로·해송 절경…글램핑장·한옥마을 등 숙박시설도 완벽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함평군이 몸과 마음을 자연 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해양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함평군은 돌머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수찜센터, 글램핑장, 카라반, 주포한옥마을 등 해양관광지 개발했다고 밝혔다.

군은 7월 중순부터 돌머리해양치유(해수찜)센터를 운영한다. 해수찜은 천연해수와 직접 달군 유황석을 활용해 뜨거운 열기로 땀을 빼며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함평의 명소다.

올해 함평군이 군 자체적으로 돌머리해양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보다 많은 관광객이 함평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읍 석성리에 들어선 돌머리해양치유센터는 연면적 1112㎡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했다. 해수찜, 해수탕, 샤워실, 음식점, 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여름철 전남지역 대표적 해수욕 명소인 돌머리해수욕장은 7월14일부터 8월15일까지 운영한다.

육지 끝이 바위로 되어 있어 '돌머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돌머리해수욕장은 1㎞의 은빛 백사장과 넓은 소나무숲이 어우러져 천혜의 절경을 자랑한다.

목재 데크로 조성된 길이 405m의 갯벌탐방로도 있다. 바닷물이 빠지면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에서 게, 조개 등이 살아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돌머리해수욕장에서 해 질 무렵 만나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낙조도 일품이다. 서해안의 황홀한 낙조를 카메라 앵글에 담기 위해 많은 사진작가들이 몰려드는 명소이기도 하다.

여름철 피서객들을 위한 인공해수풀장과 어린이풀장도 올해 시설을 개선해 재개장한다. 워터슬라이드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한다.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는 글램핑 5개 동, 카라반 10개 동과 갯벌체험 등을 마치고 쉬어갈 수 있는 초가원두막 25개를 갖추고 있다. 글램핑장과 카라반, 원두막과 갯벌체험에 필요한 장화·호미 등은 석두어촌계에서 대여할 수 있다.

바다에서의 힐링 시간을 마치고 머무를 숙소를 고민한다면 돌머리해수욕장 인근 주포한옥마을을 추천한다. 주포한옥마을은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한껏 느껴볼 수 있는 곳이다.

총 30여 동의 한옥 민박이 운영 중이며, 빼어난 경관과 편리한 기반시설,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근 지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포한옥마을 입구에서 길을 따라 언덕을 올라가면 돌머리해수욕장의 너른 바다를 마주할 수 있으며, 함평만 낙조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일상에 지친 모든 분들이 천혜의 자연 속에서 휴식하며 잠깐의 여유를 누리시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힐링 명소로서 함평을 찾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 목재데크. 〈함평군 제공〉

전통 살아 숨쉬는 '담양' 국제슬로시티 재인증

4번째 쾌거…사무국 활동 개시
주민 주도형 협업 시스템 강화

담양군이 국제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4번째 재인증을 받은 가운데 주민 주도형 협업시스템을 강화한다.

담양군은 최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창평면 삼지내마을 돌담길, 고택의 예스러움, 한과·장류 등 전통 음식문화의 보존 등을 인정받아 2007년 12월 아시아지역 최초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으며, 5년 주기로 이뤄지는 평가에서 이번에 4번째 재인증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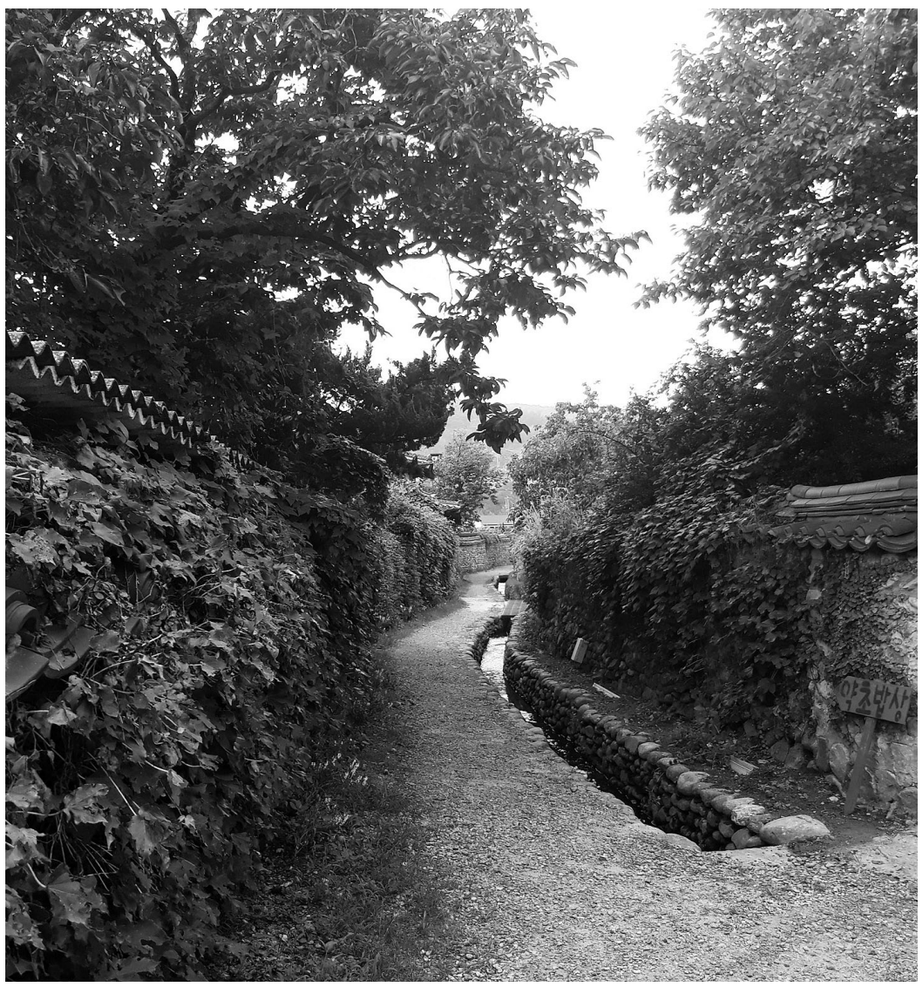
군은 이에 발맞춰 슬로시티 사무국의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담양 창평 슬로시티 사무국(창평면 돌담길 56-24)은 지난 2월 인력을 보강하고 지역에 맞는 슬로시티 전략을 세우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자원 조사를 진행해왔다. 또 주민 정체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 주도형 협업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무국은 지난 12일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대상으로 슬로시티 매니저 양성을 위한 기초교육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과 함께 슬로시티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매력적인 슬로시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 슬로시티 전담팀을 구성해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이 어우러진 담양군의 정체성에 맞는 슬로시티 정책을 추진해 선도적인 슬로시티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담양군이 국제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4번째 재인증을 받았다. 창평면 삼지내마을 돌담길. 〈담양군 제공〉

장성군 '깨끗한 물 공급' 최우수기관

물과 건강 포럼…노후정수장 개량 등 관리 철저

장성군이 최근 대전 케이워터(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 40주년 기념홀에서 열린 '제17회 물과 건강 포럼'에서 물 관리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물과 건강 포럼'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물 관리 단체·개인 포상, 물 산업 활성화 협력방안 토론,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앞서 장성군은 국고 지원 포함 총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상수관로 관망도 체계 수립과 노후 관망 개량공사 등을 통해 상수도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

지난해에는 환경부 '노후정수장 개량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포함 412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장성읍과 황룡면 월평리 일원 상수도 시설을 전면 개량한다.

오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안전한 물 공급은 장성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모든 군민이 언제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 육아·다문화가정 사랑방 새출발

가족센터, 시청 앞 신축 개관…돌봄 공간 제공·정보 공유 등

아이를 함께 키우고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도울 '나주시 가족센터'〈사진〉가 최근 신축 개관했다.

나주시는 송월동 시청 앞 가족센터 가족애(愛)뜰에서 신축 이전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개관식에는 윤병태 시장과 이상만 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사회복지 기관·단체장, 주민 40여 명이 참석했다.

가족센터는 지난 2019년 건립이 확정된 이후 2021년 8월에 착공, 지난해 10월 준공됐다.

국비 39억원과 시비 63억원 등 10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지상 5층, 연면적 1773㎡ 규모인 이곳은 주차공간을 포함한 생활기반(SOC) 복합시설로 건립됐다.

1~2층은 가족센터 공간으로 쓰이며, 2층 일부와 옥상 층까지는 주차장(163면), 전기충전소(2기) 등이 들어섰다.

1층 다목적 소통공간은 센터 사무실과 공동육아나눔터, 언어발달 교실이 들어섰다.

2층 교류 공간은 다목적 강당, 가족 요리실 등을 갖췄다.

지난 2007년 송월동 나주시 농업회의소 1층에 문을 연 나주시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춘 육아 정보를 나누고, 아동 놀이 공간과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신축된 나주시 가족센터가 육아 정보공유, 놀이, 돌봄 기능을 갖춘 글로벌 가족 소통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가족관계 향상,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통합 지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 노인일자리사업 혹서기 폭염 대책 추진

장성군이 혹서기를 대비해 노인일자리사업 폭염대책을 추진한다.

장성군은 오는 9월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1616명의 근로 시간을 기존 9-12시에서 8-11시로 1시간 앞당긴다.

또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등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전원에게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활동조끼와 모자를 제공했다.

군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공익형, 시장형 참여자 활동 일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강진군, 광주 여행사 초청 팸투어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수국길 축제' '불금불파' 등 주요 행사를 앞두고 광주지역 여행사 대표 30명을 초청했다.

재단은 여행사 대표들에게 강진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관광상품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강진 보은산 일원에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수국길 축제'가 열린다.

매주 금요일에는 강진의 명물인 연탄불고기를 즐기는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도 최근 새롭게 시작했다.

재단 초청을 받은 여행사 대표들은 수국길을 걷고 병영면에서 대표 먹거리인 돼지 숯불 고기와 하멜 맥주를 맛보기도 했다.

불금불파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전자음악(EDM) 공연도 즐겼다.

선석현 광주시관광협회 협회장은 "이번 사전답사를 통해서 수국길 축제와 '불금불파'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됐다"며 "강진의 신규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로 강진의 500만 관광객 유치 목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석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여행사별로 상품 구성을 유도해 더 직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초청을 받아 강진을 찾은 광주지역 여행사 대표들이 하멜기념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화순 거주 대학생, 공공기관서 일할 기회

30일까지 시간제 근로자 34명 모집…행정복지센터 등 4주

화순군이 오는 30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일할 대학생 시간제 근로자 34명을 모집한다.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대학교 재학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6월22일) 기준 본인이나 보호자 가운데 2명 이상이 화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대학생은 오는 7월10일부터 8월4일까지 4주간 화순군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기관·복지시설에 배치돼 근무한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넘으면 공개 추첨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과정에는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모집 인원은 총 34명으로, 군청 14명·농업기술센터 2명·읍면 행정복지센터 5명·외부기관 13명 등으로 구성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화순군 총무과 평생교육팀(061-379-335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방학 기간 다양한 경험을 쌓을 좋은 기회"라며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직무 체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